

“송광사 성보 꼭 찾아야 한다”

도난 6개월 수사 담보상태... 불감증 우려

송광사 국사진영(보물 제 1043호)은 과연 돌아올 것인가. 2백15년간 송보종찰 송광사를 지켜오던 국사진영의 도난 사건이 발생 6개월을 넘도록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성보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순천 경찰서는 지난달 초 송광사 성보도난 수사본부를 전담반으로 전환하고 형사2계 수사관 6명을 전담배치 했으나 수사초기의 실적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전담반은 자체 수사(5백만 원)에 문체부(2천만 원), 총무원(5백만 원)이 총 2천5백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자 제보를 통한 수사진전을 기대했으나 최근에는 제보도 중단된 상태다.

송광사 성보도난사건을 총지휘하고 있는 이광수 검사(순천지청)는 “전국의 전문적인 도굴 범죄자를 상대로 수사에 임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국사진영이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훼손되지 않게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전담반은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들을 좁혀가면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보를 잃어버린 송광사(주지 현고스님)는 도난사건이후에 ‘성보찾기 1백일 기도’를 봉행하고 다른 성보의 도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서서히 성보도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송광사는 지난 2월부터 본말사 탕화 1백여점을 영인본으로 제작하고 박물관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내부 시설공사를 남겨놓은 송광사 박물관은 정부예산이 지급되면 최종공사를 마무리하고 본 말사의 문화재급 성보를 전시할 예정이다.

송광사 총무법경스님은 “대중 모두가 조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심정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에서 성보도난을 내부소행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대응의 분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도 사건 발생 직후 포스터 3천부를 제작, 전국사찰에 배포하는 등 송광사 성보찾기에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광사 성보도난 수사가 이처럼 담보상태에 머물자 불자들은 “교계에도 성보도난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며 “성보 문화재 찾기운동본부 발족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광사=이준엽 기자)



송광사는 국사진영 도난이후 성보찾기 1백일기도를 봉행하는등 성보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사진영은 성보를 잃은후 사진영정을 봉안, 참배객을 맞고 있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 ‘없었던 일로’

문체부 행정심판위 국립공원 보존이유 허가 취소

작년 12월 경상북도가 허가한 가야산 골프장 건설사업이 취소될 전망이다.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는 지난 5일 ‘골프장 건설반대 고령·덕곡 투쟁위’가 4월에 낸 골프장 건설 관련 행정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건설허가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식상의 절차라 할 수 있는 문체부장관의 최종승인이 내리지만 심판위의 결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경북도는 이에 기속되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우려가 커 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내 골프·스키장 건설금지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취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대책위는 앞으로 도시사방문, 청와대에 진정서 발부, 지속적 서명운동, 사회저명인사 1백인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 발표이후 해인사대책위, 중단대책위등 6개 대책위원회 소속회원 20여명은 10일 대구환경운동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심판위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대해 논의했다.

공공대책위는 앞으로 도시사방문, 청와대에 진정서 발부, 지속적 서명운동, 사회저명인사 1백인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사찰음식 연구회 창립 천태종 삼광사, 지난 15일

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는 지난 15일 법화상매당에서 불교전통 요리연구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동회는 잊혀져 가는 사찰 전통요리를 발췌, 계승하고 그의 연구개발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일정·교재등 토의 행사교육원 교수회의

오는 8월14일~9월6일에 실시될 제9기 조계종 행사교육원을 위한 교수인원회의가 지난 1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 교수인원 선정, 교육일정, 교재검토등 행사교육원 개설을 위한 전반적인 토의를 가졌다.

한 사찰에서 6개월 이상 있는 행사에게만 피교육 자격을 부여키로 하는 한편 이번에도 교육원에서 제작 배포한 만의를 사미계 수계시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종단협 기구 확대 개편

부회장·주무이사등 임원진 보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주스님)는 지난 10일 남산 동보사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장관개정에 따른 임원진을 보강했다.

기존의 서봉(태고종) 문덕(천태종) 탁해(진각종) 통리원장등 3명의 부회장에 원서·지하(조계종) 홍과(관음종)스님이 추가되고, 이사로 원서·지하·법타·시현(조계종) 자월(태고종) 도원(천태종) 덕해(진각종) 정사 등이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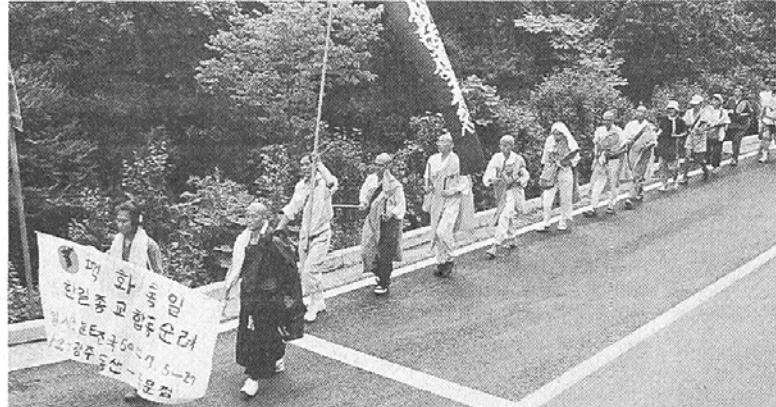
한편 사무총장은 공식으로 문 채 시현·자월·도원스님이 주무이사로서 사무총장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북종교인대회의 9월 개최와 구체적 일정, 장소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북경을 방문했으나 북측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9월 개최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남북종교인 대회 개최전망 불투명

오는 8월로 예정된 남북종교인대회 개최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종교인협의회 법안스님(실천승가회)등 4명의 실무단은 남



장마비 헤쳐며 통일염원 생명과 평화의 제종교 통일염원 합동국토순례단이 지난 5일 광주 중심시에서 발대식을 갖고 22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순례단은 중부지방을 거쳐 판문점을 찾은후 다시 서울까지 이어지는 도보순례를 계속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광주-마곡사간 순례구간을 걷고있는 22명의 순례단.

도원스님등 해외유학생 18명

조계종, 2백만원씩 장학금

조계종 교육원은 해외유학생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도원스님(미국, 불교학 전공)등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장학

선발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지급은 아시아 14명 미주 3명 구주 1명등 총 18

명이며 1인당 2백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교육원은 승가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관련 논문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와함께 교육에 관한 간담회도 계속 개최키로 했다.

구독신청: 737-0693

석왕사, 복지관 위탁운영

10월경 개관...복지사·자원봉사자 모집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가 지난 1일 부천시로부터 덕유마을 사회복지관(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덕유마을단지내)을

위탁 운영받았다.

지하 1층 지상 2층 총 건축면적 2백38평 규모의 덕유마을 사회복지관은 영담스님을 관장으로

로 아동 및 청소년, 가정, 노인, 장애인 및 지역복지사업을 통해 중동 신도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개관식은 올 10월경에 가질 예정이며 현재 복지관을 운영해 갈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교련, 하계 극기수련대회

교양강의·외국인과 대화등...28~31일 속리산서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현성)가 '95 전국 청소년 하계극기수련회'를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세계적 감각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수련대회는 일반 캠프형식을 가미한 불교수련회로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의 기상과 건전한 불교정서를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중·고

등학생 1백50여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시간등으로 구성된 과정프로그램과 심성계발, 교양강의, 외국인과의 대화등의 교양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탈춤체조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세계각국의 의상 만들어보기 등 외국문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된다.

특히 이번 수련대회에는 주한 미국·독일·프랑스 청소년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미래불교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불자들에게 문화개방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교련의 김남재 간사는 “조별활동을 통한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청소년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 초청법회 ‘성황’ 본사 부산지사 개소기념

고은(본사 본설교문)씨 초청 본사 부산지사(지사장 이종관) 개소기념 대중법회가 지난 11일 동구 범일동 소재 지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고은씨는 “불법의 대요는 살아있음과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사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리의 실천”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그 진리는 관념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20일 주요사찰 사무장 교육

조계종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사무장 교육이 오는 20일 9시부터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실시된다.

교구본사를 비롯 관료사찰과 지역 및 특별분당사찰에서 1백여명의 사무장이 참석하게 될 이번 교육은 개정된 종헌 총법 안내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및 부서별 총무행정 지침시달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내달말 본사 포교국장 연수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1일 불교회관 1층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고 제2차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연수를 오는 8월 29, 30일 직지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16개 교구본사 포교국장이 참석한 이날 불교교양대 등록, 포교사고시 실시등 포교원 하반기 사업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실상선원 아미타불 점안 법회

서울 중곡동 소재 실상선원(원장 정현)은 지난 12일 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점안한 실상선원 불상은 높이 3m15cm 무게 1톤의 청동불상이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불자연인과 부친 석왕사 사물놀이패가 동참, 공연을 펼쳤다.

청교련 악물남용 예방캠페인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는 지난 14일 부평시장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및 악물남용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위원과 청교련 회원은 중심으로 마련된 이날 캠페인에는 2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 가정행렬과 함께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불교지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발: 7월 24일, 8월 28일
- 동참금: 295만원
- 일정: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둔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문자랍고개-혼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탈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발: 7월 21일, 8월 25일
- 동참금: 188만원
-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둔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발: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210만원
- 일정: 서울-상해-성도-라사-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스리랑카 캔디 불치제 6일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축제 캔디 페라헤라-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발: 8월 4일
- 동참금: 118만원
-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덤블라-캔디(불치제)-라롬보-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195만원
-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송산 소림사-경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발: 7월 29일, 8월 19일
- 동참금: 100만원
-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르부두르 사원-

- 출발: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 출발: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북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